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57> 출가하여 스님이 된다는 것

46장부터 이 앞까지는 도를 닦는데 중요한 방편이 되는 보시, 인욕, 정진, 주력, 예배, 염불 등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았다. 이 장부터는 세속의 명예와 이익,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경계들이 잠으로 덮여 있어 헛된 것임을 계속 깨우쳐 주면서 출가한 사람으로서 본분(本分)을 돌아보게 한다. 이 세상의 온갖 욕망과 향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출가하여 무소유(無所有) 정신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도를 닦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선가귀감> 57장에서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일에 대하여 말한다.

出家爲僧 豈細事乎 非求安逸也 非求溫飽也 非求利名也 爲斷煩惱也 爲續佛慧命也 爲出三界度衆生也

출가하여 스님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편하고 한가로운 생활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고 살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요, 시비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 성불하려는 것이요, 삼계(三界)를 벗어나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로 번역한 '불혜명(佛慧命)'에서, '혜명(慧命)'은 지혜로 생명을 삼는다는 뜻이다. 색신(色身)은 중생의 몸은 음식에 의지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몸은 지혜에 의지해야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기르지 않으면 부처님이 될 수 없다.

부처님 지혜를 이어 모든 중생을 구제 하려면 삼계를 벗어나야 한다. '삼계(三界)'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셋으로 나눈다.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아수라,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를 말한다.

'욕계'는 음욕(淫欲)이나 식욕(食欲)과 같은 세속의 욕망을 품고 사는 중생들의 세계이다.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세계를 비롯하여 하늘나라 맨 밑에 있는 욕욕계(欲天)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색계'는 음욕과 식욕을 벗어나 맑고 깨끗한 모습만 가지고 사는 중생들의 세

계(無邊處), 무소유처(無所有處),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색계(四無色界)라고도 한다. 중생의 입장에서 삼계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부처님의 위치에서 보면 모두 아리석은 중생계에 속한다. 삼계는 중생들이 고통 받고 사는 생사윤회의 끝없는 굴레이므로 출가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벗어나야 한다. <법화경> 비유품에서도 "삼계를 떠날 수 있는 것과 같으니 참으로 두려워해야 한다(三界無安 猶如火宅 衆苦充滿 甚可怖畏)"라고 하였으며, 또 화성유품에서 "삼계의 지옥에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야 한다(能於三界 勉出諸衆生)"라고 말하고 있다. 출가한 사람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어서 빨리 성불하여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야 할 것이다.

주(周 557-580) 나라 수도에 있던 대중흥사(大興寺) 도안(道安 ?-600) 스

는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다. 그 행위는 반드시 뒤따를 만해야 하고 그 인행은 반드시 본받을 만해야 한다. 법복을 입고 출가함에 움직이면 삼계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본받을만한 법칙이 되어야 한다. 탐욕이나 다름이 없어야 하고 중상모략이나 간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문을 높고 고결해야 하며 품은 뜻은 깊은 곳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명성과 칭찬이 되어야 존경받는 삼계의 자리에 들어간다. 현명하다는 단계를 벗어나 성인의 경계로 들어가니 '나'라는 생각이 깨끗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임금이나 부모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온 천하 사람들이 그의 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아내나 부모의 몫을 줄여 옷과 음식을 공양하고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해주는 것은, 그 뜻과 행위가 맑고 깨끗하며 신명(神明)에 통하여 '덩 빈 충만'으로 가득하니 기이하고 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夫出家爲道 至重至難 不可自輕 不可自易 所謂重者 荷道 佩德 榮仁 義奉 持淨戒 死而有已 所謂難者 絕世 離俗 永割親愛 廻情易性 不同於衆 行人所不能行 割人所不能割 忍苦受辱 捐棄軀命 謂之難者 名曰道人 道人者 導人也 行必可履 言必可法 被服出家 動爲法則 不貪不諱 不讓不厭 學問高遠 志在玄默 是爲名稱 參位三尊 出賢入聖 滌除精魂 故得君主 不望其報 父母不望其力 普天之人 莫不歸慕 捐棄滅養 供奉衣食 屈身俯仰 不辭勞瘁 以其志行 清潔 通於神明 懷白虛白 可奇可貴)

이 장에서는 출가한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출가인의 삶은 편하고 한가롭게 살면서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시비 분별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번뇌를 끊고 괴로운 생각을 벗어나 성불(成佛)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다. 이런 본분을 알고 살아가는 출가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서산 스님은 말한다.

可謂衝天大丈夫  
기개가 하늘을 찌를만한 대장부보다.  
원소 스님(송경사 인월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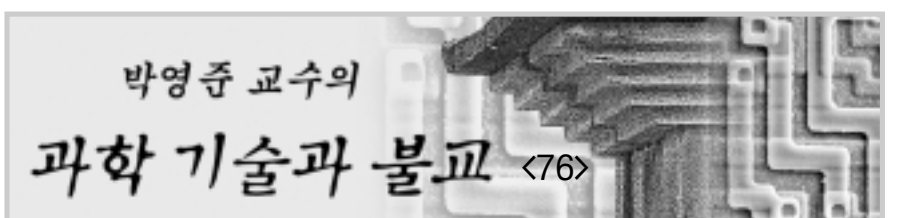
### 출가인의 삶은 명예를 얻으려는 것이 아닌 생사 벗어나 성불하여 중생 제도하려는 것

계이다. 욕계 위에 있고 그 세상은 밝고 아름다운 느낌의 행복만 가득하므로 색계라고 한다. 이 곳은 천인(天人)들이 머물며 빛으로 음식을 삼거나 언어로 쓰기도 한다. 선정의 깊고 얕음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누어 사천천(四禪天)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 네 등급을 다시 열여덟 등급으로 나누어 색계십팔천(色界十八天)이라고도 한다.

'무색계'는 욕망이나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고 오직 수(受)·상(想)·행(行)·식(識) 네 마음만 남아 있는 세상이다. 이 세계는 심식(心識)이 욕망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의 장애를 벗어나 오직 오묘하고 깊은 선정에 있을 뿐이므로 무색계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미세한 망상은 남아 있다. 이 세계는 색계 위에 있고 공무변처(空無邊處), 식무변처

님은 <유계구장(遺教九章)>에서 출가한 스님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말하고 있다.

"무릇 출가하여 도를 닦는 길은 지극히 소중하고도 어려운 일이니 스스로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스스로 쉽게 여겨서도 안 된다.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도덕적이며 어질고 의로운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세속을 떠나 부모의 사랑을 뒤로 하고 중생의 아픔을 잊지 않아야 하므로 그 성품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실천하고 끊어낼 수 없는 것을 끊어내며 모든 고통을 참아내며 생령조차 내버려야 하니 이를 어렵다고 한 것이다. 이런 사람을 도인이라 하니 도인이라 한 여러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6>

#### ID(Intellectual Design; 지적 설계)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지적설계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학과 신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특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다윈에 근거한 진화론 대신에 혹은 같은 비중으로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주장하면서 더욱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논쟁의 중심은 다음과 같다. 즉, 생물이 가지고 있는 요오르기 짝이 없는 DNA의 복제, 그리고 단백질 분자의 상호관련,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생기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 크기는 인간이 보여주는 학문적, 예술적인 재능을 진화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묘하다는 것이다.

가지더라도 우주의 탄생을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의 창조론이 공격을 받는 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항상 틀렸다는 점이다. 즉 지구가 돌지 않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던 점, 그리고 창세기가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가 몇 천 년이라고 하는 점 등이 공격을 받는다. 둘째는 더욱 큰 약점은 그 조물주가 왜 하필이면 히브리 문화가 만들어낸 유대인의 신인가라는 점이다. 세계 각 민족은 각각 세계의 태초에 대한 각자의 신을 만들어 냈는데도 말이다.

셋째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면, 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괴로움이 존재하는

### 창조론은 끝없는 의문에 대해 애매한 대답 뿐 부처님 가르침, 쓸모없는 논쟁의 현명한 대안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선택'이라는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형질이 자연에서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선택된 것들만이 계속 생존하고 변형,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법칙을 자연 선택이라고 하였다.

또 하나의 논점은 우주상수에 대한 것이다. 물리학의 마지막정리라고 할 수 있는 우주의 탄생에 대한 설명에서 물리학자들은 몇 가지 상수를 도입한다.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점으로부터 우주가 탄생하는데, 이 작은 점이 가지고 있는 질량사이에 중력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작은 점으로 존재할 수 없으면서 대 폭발을 겪게 된다는 설명이다. 폭발의 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은 몇 개의 상수를 도입했는데, 이 상수가 몇 억분의 일만큼만 다른 값을

가, 왜 수억 년을 기다려서 인간을 만들어 냈는가, 조물주는 누가 만들었나 등 전통적인 끝없는 의문에 대해서 그저 애매한 대답이 없고 변형,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법칙을 자연 선택이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초기경전에서 쓸모없는 논쟁 중의 하나로 조물주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끊고 계신다. 이 가르침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중단하고 인간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는 실용주의 노선인지, 아니면 집착하는 중생들이 느끼지 못하는 우주의 존재론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현대가 겪고 있는 쓸모없는 논쟁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안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전강

1월 21일 하동 쌍계사에서는 조실 고산 스님이 "후배를 가르칠 자격이 있다"며 중강 월호 스님에게 전강(傳講)을 했다. 전강법회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법호를 내려 준다.

제자들에게 강명(講明)을 전수하는 전통불교의식

인 전강법회에서 전강제자는 스승 강명을 전수받음으로써 앞으로 전통강원 강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공인받는다. 부처님의 전방안장을 부촉하는 법회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전강이란 무엇인가?  
교학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을 의미한다. 강학(講學) 전등(傳等)의 뜻을 가진 전강은 부처님과 스승으로부터 학적 토대를 물려받는 의식이다.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전한 전강에서 시작되는 전법의 한 유형이다. 전등법계보(傳燈法系譜)에 의하면 부처님께 직접 법을 전달받은 마하가섭을 제1조

로 시작해 인도에서 제27조 반야다라까지 이어지고 제28조는 중국으로 건너간 달마가 있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제57조 태고보우 국사가 법을 이어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전강을 할 수 있는 스님은 대략 20여 분 남짓이라 한다.

전강식 관련 문헌은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은 없다. 다만 진행되는 전강법회의 형식을 살펴보면 후학들에게 강의할 능력을 인정받은 제자에게 대중이 3배를 올리고 스승이 그 제자에게 법호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전강제자는 개당설법(開堂說法)을 통해 공인을 받았다.

강자연 기자

### 당신이 나의 신

그림 : 문병성

### 기문명리학강의안내

www.gimun.net  
(사주, 작명, 택일, 관상, 풍수, 단서)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문의: 02)961-0871 매주 수요일(사주명리학), 목요일(기문명리학) 오후7시~9시
-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문의: 031)201-3377 매주 화요일(사주명리학) 오전반(10시~12시) 오후반(13시~15시)

**개강일시** 2007년 3월부터

**원서접수** 경희대학교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담당 교수 : 손혜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손혜림 기문넷 대표  
02)3476-3433

**기문명리학이란?**  
일반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전면에 의해 내려오는 전통학문인만큼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기문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카운슬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분,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돌이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전리의 학문입니다.

손혜림 원장 특별개인지도 문의 02)3476-3433

### 불로화정 (不老化精)

####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의 15여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표시킨 강정식품으로 50여년간 법전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려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 「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철천리에 방영된 사극 「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 「감식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 「不老化精」입니다.

◆ 가격: 정가 육십만원(20년간 발표식품, 2개월분 2병)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1병 30만원)

(우체국) 703975-02-094201 <농협> 176277-56-097900  
예금주:윤정현 예금주:윤정현  
콜센터:1588-1000 콜센터:1544-2100  
대구지산동우체국 053)782-2314 대구축산동우체국 053)783-9901

전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

###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원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원(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이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양한의원 의 윤원장은 수십년간 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인성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원(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원(丸)을 5-7일간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아던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함액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원을 드실 분**

- 제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귀에암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피력이 잘 안되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양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 간(肝)

간 지방간  
간 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 조림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 1kg을 구슬알 다슬기 1kg을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고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6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